

당신의 존재가 사명이다: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

바버라 앤 멀런, CSJ

(미국 장상수녀연합회(LCWR) 승인을 받아 재간행)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는 예수를 본받으려는 이들에게 항상 깨어있기를—*마음의 귀로 경청할 것을* 권고했다(1). 사명을 수행하는 여성수도자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부여하고 도움의 손길이 가득한 방식으로 세상에 관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심장의 박동이 알려준다는 점이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

본래 우리가 받은 첫째 사명은 사랑하는 사람(LOVER)이 되는 것이다. 세례 때, 이마에 물을 붙고 성유를 바르면서 사제 혹은 부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십자표를 그을 것입니다.” 앤서니 J. 기틴스는 이를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세례를 통하여 모든 이는 선교사(사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며, 선교사가 될 수 있다.” (2) 이 부르심은 신비이자 현실이다. 세례라는 축복의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 마음으로서의 여정, 성인들의 통공 속에 안겨 있기까지는 결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존 헨리 뉴먼 추기경은,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는 사명이 있다.” (3)고 했다. 우리 자신을 소개해야 할 때, 우리는 자주 이름과 수도회를 이야기하곤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간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사, 법률가, 자원봉사자, 활동 사도직에서 물러나 기도 사도직을 하는 이 등, 사도직에서 요청하는 바에 재빨리 응답한다. 우리가 하는 일-사도직-은 자동적으로 우리 신원을 알리는 것이 된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식한 때는 언제였는가?

“당신 존재가 사명이다.”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이 본래 우리를 부르신 바를 더 살펴보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널리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이 초대하시는 바를 듣기위해 주과수를 맞추고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게다가 변화하는 삶과 수도회 현실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에 날마다 조금씩 다르게 응답한다. 우리는 사명이 “되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다음날 사명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변화를 겪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우리가 사명이 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사명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기틴스 신부의 말에 따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날 동안,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온전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는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세례 받은 이들은 이러한 소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4) 사명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이가 - 각자의 나이와 체력에 따라 - 생명을 주는 상호 관계적인 체험에 함께하도록 초대됨을 의미한다.

태초부터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하시고 서원생활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려는 보다 깊은 갈망을 지닌 정신과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다가오신, 사랑하는 자의 원형이신 분(Original Lover)은 사명을, 사명이 되라는 부르심을 특정한 봉사와 관련된 사도직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사실, 어떤 형태의 사도직은 수도생활에 필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명을 살아내는 것, 널리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살아내는 것은 여성 수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다.

사명은 우리를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잠재적인 여러 상황들과 변화하는 모습을 살피도록 독려한다.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부르심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찬 현존을 더 깊이 보여주도록 어떻게 우리를 초대할 지 모르는 상태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감을 의미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서원의 삶은 독특하게 훌륭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목적이다. 우리는 수도회에 서약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수도회는 널리 사랑하기 위한 우리의 성소와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고 독려하기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그렇게 했다.

새로운 지평들을 예측하고 수도회 각 회원들의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을 지지하는 것은 리더들에게 있어 사명의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 있다. 마거릿 휘틀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직(Organizations)은 어떤 새로운 모델을 자체 조직에 강요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계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현실이 ‘저 밖’에 없다. 어떤 조리법도, 공식도, 점검표나 조연도 출현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서로,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며 일어나는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5) 사명은 개인의 상황과 수도회 상황에 따라 새롭고 다양하고 또 고유하다. 우리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새로운 공간에 순응하면서 그 안에 있게 된다. 변화하는 이러한 지평, 수도공동체 삶의 이야기에는 유연한 흐름이 있으며- 또한 스스로를 쇠신하는 잠재력도 있다.

사명을 살아낸다는 것은 어쩌면 진화의 정신으로 꿈꾸도록 - 사랑 가득한 하느님 가슴에 기대어 새로워진 힘으로 불타올라 소용돌이치듯 세상으로 날아오르도록-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변해가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역량에 따라 우리가 전적인 헌신의 자세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에 비탄에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살아간다. 일리아 텔리오(OSF)는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 사명에 충실히 머무른다면 (나는 당신이 일생동안 하느님 마음 속으로의 여정에 귀를 기울이도록 당신을 초대한다), 당신은 여정 중에 변화되었기에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6)

우리가 삶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동안 복음을 위한 사명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회원이 감소하고 중간 나이가 증가하며 입회자가 거의 없는 것이 수도회 현실이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고 영원히 살아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도생활이 변화해가는 시대에 담대함의 의미를 우리가 표양으로 보임으로써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원초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역량을 키워 가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존재케 한 아낌없이 베푸는 하느님의 얼굴이 되기를 중단할 정도의 사치를 누릴 여지가 없다. 우리는—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나이에 관계없이 거룩하신 분과 춤을 추며 사랑의 음악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게 한다. 사명의 춤은 끝이 없다.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만이 널리 사랑하라는 평생에 걸친 사명과, 사명 노래에 맞추어 얼마나 성공적으로 춤을 춰 왔는지를 온전히 이해할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암마 신클레티카는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다. “여러분이 수도원 안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곳으로 갈 경우 여러분에게 엄청난 해가 될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평온을 누리십시오. 품고 있던 알을 버리는 바람에 알을 부화시키지 못하는 새처럼, 믿음과 희망이 식어버린 수녀나 수도승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동안 죽고 맙니다.” (7) 세상을 위해 희망을 붙들라. 새로움은 각 수도회 회원 내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새로움이 항상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리라는 것을 기대하라. 마음의 귀로 경청하라 -당신 영혼에 속삭이고 있는 하느님 마음에 귀를 기울여라. 오, 널리 사랑하고 춤추는 것을 잊지 말라!

주석

1.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 OSB, (480-547 AD), 때로 성 베네딕토로 알려져 있으며, 이탈리아인으로 그리스도교 수도승이자, 작자이며 신학자였다.
2. 앤서니 J. 기틴스, CSSp, *Ministry at the Margins 주변부에서의 사도직*, Orbis Books, 2002년 4월, p. 11
3. 존 헨리 뉴먼(1801-1890)은 영국 신학자, 대학교수, 학자, 시인이었다.
4. 기틴스, op. cit.(위의 책), p. 12
5. 마거릿 휘틀리, *현대과학과 리더십 Leadership and the New Science: Discovering Order in a Chaotic World*, Berrett-Koehler Publishers, 3rd edition, 2006년 9월, p. 9,
6. 일리아 텔리오, *The Unbearable Wholeness of Being: God, Evolution, and the Power of Love 존재의 참을 수 없는 온전함: 하느님, 진화, 그리고 사랑의 힘*, Orbis Books, 3rd edition, 2013년 4월
7. 암마 신클레티카, “사막의 교모,”는 80세의 나이로 350년경에 선종했다.